

“박사방 회원이 담임까지”... 교육청 성범죄 대처 도마 위

2020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

교사 4명, 박사방 유료회원 활동 최근까지도 담임 등 교직생활 지속 담임교사 전수조사 등 대책 촉구

미성년자를 협박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초등학교 사도 있었다”라면서 “유료회원은 성착취물을 다운받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도 해당 영상물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 수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가 ‘박사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 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 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적발됐다.

그럼에도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학교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 의원은 “‘박사방’에 가담했던 한명은 기간제 교사인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만뒀고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다시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인천교육청은 담임교사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사방 등 가학적인 성범죄 뿐 아니라 ‘스쿨미투’도 만연해 있지만,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사례만 공개하고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아침에도 정보 공개는 최대한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개 사안 24개중 9개밖에 안했던 것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N번방 사건 당시에는 해당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몰랐으며, 현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심현식 예원회계법인 이사(오른쪽)가 동국대를 방문해 공인회계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

심현식 예원회계법인 이사 동국대에 장학금 1억 전달

동국대는 지난 14일 심현식 예원회계법인 이사가 동국대를 방문해 공인회계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은 심현식 씨의 뜻에 따라 ‘현인공인회계사육성기금’으로 명명돼, 동국대 학생들 중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들을 지원하는 데에 쓰일 예정이다.

오래 전부터 사회 공헌의 뜻을 품어 왔던 심현식 씨는 “공인회계사에 뜻이 있으나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교육부 “학교 안전사고 피해학생, 치료전·후 간병비 지원”

유초중고 안전취약 학교 시설개선 대학 민간배상 책임보험가입 유도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치료 후뿐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학의 민간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유초중고 중 안전이 취약한 학교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학교 안전사고 보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학생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청사 교육부

먼저, 학교 안전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으면 치료 중에도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치료 이후 제한적인 경우만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에 따른 치과 치아 보철비 보상 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치아 복구비 한도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학교 안전사고 후 장기 입원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 자료와 학습 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의 치료·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협력병원제’도 도입키로 했다.

협력병원에서는 공제회로 피해 학

생 치료 비용을 직접 청구해 학부모의 청구 절차를 돕는다.

대학내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지적에 따라, 대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운영, 안전교육·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 보상 보험 가입 현황도 포함한다.

/한홍수 기자 hys@



플레이버 다이닝이 지난 13일 인천대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인천대

플레이버 다이닝 인천대에 1000만원 기탁

인천대는 플레이버 다이닝이 인천대 학교발전기금에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대학교발전기금은 13일 이사장 김용식, 상임이사 김재영, 플레이버다이닝 김도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대 본관에서 발전기금 기탁식을 열었다.

플레이버 다이닝이 기탁한 발전기금은 창업지원단 장학금으로 인천대 학생 중 창업에 한 학생들에게 창업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서울북부교육청, 지역교육 발전 맞손 구직자, 기본 10개·평균 13개 기업 지원

협조체제 구축·교육인프라 공동 활용

삼육대는 지난 14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교육 경쟁력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교육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정보 공유 활성화 ▲교원의 전문성 및 교육역량 신장을 위한 지원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문 지식 강의·멘토링·상담·봉사 등 교육기부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탐방 프로그램 등 교육지원 ▲기타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오른쪽부터) 김일목 삼육대 총장,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조호규 교육장 /삼육대

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일목 총장은 “양 기관의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교 교직원과 정 이수 학생들은 교직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사람인 구직자 944명 조사

10명중 3명 서류전형도 통과 못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사지원 기회가 줄면서 청년층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 구직자는 평균 13개 기업에 지원했으며 최종 합격률은 15%에 그쳤다.

사람인이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 944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올해 상·하반기 포함 평균 13개 기업에 입사지원을 했다고 답했다.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의 회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은 낮았다. 최종 합격 경험에 있는 구직자는 15.8%(복수응답)에 그쳤으며, 10명 중 3명은 서류전형조차

도 통과하지 못한 것(30.9%)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서류전형만 합격’한 구직자가 39.8%였으며, ‘면접까지 합격’(18.5%), ‘필기시험까지 합격’이 7.1%였다.

응답자들은 취업 준비를 시작 한 뒤로 평균 9개월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특정한 목표기업을 정해두지 않고 ‘일단 무조건 지원’(65%)하고 있는 구직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19는 실제로 구직자들의 취업활동에 타격을 크게 주고 있었다. 10명 중 9명(92.2%)은 올해 취업이 더 어렵다고 체감했으며, ‘코로나19로 채용을 하는 기업이 적어서’(70.9%, 복수응답)라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현진 기자

서울과기대 대학원생 등록금 전액 지원

서울과학기술대가 미래 지식 창출을 선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원생에게 미래인재장학금(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서울과기대 대학원 특화 전략의 하나로, 공모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해 연구장학금, 해외 연구 인턴십, 산업체 공동연구등을 지원하는 서울과기대 자체 인력양성사업이다.

/이현진 기자